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7. 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佛 상원, 개인정보 침해 논란 「테러방지법」 개정안 채택
 - 7.1 佛 상원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「테러방지법」 개정안을 채택, 국방장관은 同 법안이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며, 테러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탐지 도구라고 강조
 - * 6월 초 하원에서 통과된 同 개정안은 △ 테러 사건 출소자 최대 2년간 감시, △ 온라인 테러 선동 게시물 반복 소비 파악 알고리즘 허용 등을 포함
- 英 MI6(해외정보국) 前 국장, 알카에다·ISIS 재건 가능성 경고
 - 英 「알렉스 영거」 前 MI6 국장은 美軍 등 서방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할 경우, 아프간정부와 탈레반간 내전 발발과 중동內 알카에다와 ISIS의 재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
 - * 아프가니스탄內 알카에다 조직원 500여명과 ISIS 연계자 2천여명 잔존 추정

미주

- 美, 아프가니스탄 주둔 자국군 예정대로 철수
 - 7.3 美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자국군 철수는 계획대로 9월초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며, 안전문제를 고려해 잔류 美軍의 인원수와 위치는 미공개 한다고 발표
- UN, 코로나19로 인한 테러범 활동 증가 경고
 - 6.30 UN 대테러 사무총장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,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테러범들의 활동이 증가중이며, 온라인 활용 등 테러 양상도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고
 - * 그 외 △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ISIS 위협, △아프리카內 테러 위협, △초국가적 테러 위협, △대테러 기술 및 노하우 업그레이드 등 4대 전략 과제 강조

아 · 태평양

○ 탈레반, “예정 철군기일 이후 외국군 잔류시 대응” 경고

- 7.4 탈레반 대변인은 英 BBC 인터뷰에서 9월로 예정된 철군기일에 맞춰 모든 외국군이 카불을 떠나야 하며, 도하 합의에 반해 병력을 잔류시킬 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

○ 홍콩, 폭탄테러 모의범 9명 체포

- 7.6 홍콩 경찰은 법원·지하철·터널·차량·길거리 쓰레기통 등에 고성능 폭발물질인 TATP(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)를 설치해 터뜨리려 한 혐의로 중고생 6명 등 9명을 체포했다고 발표

* 경찰은 TATP 재료와 제조 설명서, 미량의 폭탄, 공기총, 약 8만 홍콩달러를 압수

○ 국내 암호화폐거래소, 자금세탁 방지 위한 국제공조 대응 추진

- 6.30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(두나무·빗썸·코인원·코빗)는 '22.3월부터 발효될 암호화폐 '트래블 룰(Travel Rule)*'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,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서비스 공동 개발 및 연내 정식 출시 예정

*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가 테러 자금조달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전송 시 송·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

중 동

○ 이라크, 反정부 무장세력의 전력공급망 공격으로 18명 사상

- 7.3 이라크 정부는 지난 10일간 反정부 무장세력들이 폭염 속 전력 공급 방해를 위해 61개 변전소와 주요 전력공급망 공격을 자행해 총 18명의 사상자(사망 7, 부상 11)가 발생하였다고 발표

아프리카

○ 佛, 西아프리카 지역 대테러작전 재개

- 7.6 佛 국방부는 지난 6.3일 西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의 알카에다·ISIS 연계 테러단체 제거 작전 '바크하인' 종료 발표 이후, 한 달 만에 대테러 군사작전 재개 성명을 발표

'777 Day'* 이라크 자살폭탄 테러 사건

* 서양에서는 '07년7월.7일을 숫자 '7'이 세번 겹친 길일로 여기며 '777 Day'로 호칭

- '07.7.7, 오전 8시30분경 이라크 북동부 키르쿠크 부근 에메를리 마을의 시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, 150여명 사망·250여명 부상
 - 2만 6천여명 거주 에메를리는 시아파 인구 다수 마을로 수도 바그다드에서 160km 떨어져 그간 정부 치안력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
 - 사건 당일 테러범들은 외견상 이라크 군용차량과 유사한 대형트럭 두 대에 2t 분량의 폭약을 탑재한 채로 시장으로 돌진해 자폭하였으며, 사고 지점에는 아침 장에 나선 주민들로 붐벼 다수 사상자 발생
- 사건 직후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없었으나 이라크 정부는 관련 테러를 시아파 주민을 겨냥한 수니파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분석
- 한편, 駐이라크 美軍사령관 「퍼트레이어스」 역시 해당 테러에 대해 “알카에다 연계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이다”라고 평가

테러 상식

< 알카에다(AQ) >

- (목표·결성) 전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「오사마 빈라덴」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해 '88년 결성



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, 영국·호주·인도·러시아 등
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(AQIM), 예멘 알카에다(AQAP),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(HTS), 이슬람·무슬림 지지그룹(JNIM)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 호텔 폭탄테러(사망 26명, 부상 56명)
'05.7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70명)
'01.9 美 항공기 4대를 납치, 뉴욕 등에서 공중 충돌 테러(사망 2,996명)